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support network and perceptions of parenting task difficulty

이 은 해**
Rhee, Un Hai
이 미 리***
Lee, Mee R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maternal social networks and to examine their relationships to maternal perceptions of parenting task difficulty. One hundred and thirty-three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indicating individuals in their networks, support functions, and perceptions of task difficulty.

Mothers reported an average of 6.5 persons in their networks, including primarily with her own mother, the husband, mother-in-law, and sisters. While support was provided mainly by her husband and her own family members, the kinds of support varied depending on the person in networks. It was also found that support functions were different in terms of maternal job status, sex of the child, and the child's previous experience in day care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Emotional support from network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arenting task difficulty, especially in daily routine care. Mothers who perceived more emotional support from networks reported parenting to be less difficult.

Ⅰ. 서 론

부모역할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인 증거 면에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연구자들은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

* 본 논문은 1995년도 연세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과제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모가 특정의 양육자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이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Belsky, 1984). 특히 주된 양육자로서 어머니와 자녀를 둘러싼 사회적 지원 관계망(maternal support network)이 얼마나 어머니의 양육을 지원해 주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따라 아동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해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Cochran & Brassard, 1979).

이와같이 부모 외에 부모-자녀를 포함한 더 넓은 사회적 관계에 관심이 집중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인간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의 대두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94). Bronfenbrenner에 의하면, 아동과 양육자 간의 감정적 유대는 제3자의 참여와 인정, 격려에 의존할 뿐 아니라 점진적인 대인간 상호작용의 유형을 확립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반응성을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0년대 이후에 와서야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Abernathy, 1973; Cochran & Brassard, 1979; Lewis & Weinraub, 1976).

Abernathy(1973)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을 밀접하게 형성한 부모들이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유능감이 높았다고 한다. Cochran과 Brassard(1979)도 문헌 고찰을 통해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은 아동에게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대인관계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아동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Levitt, Weber 그리고 Clark(1986)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주요 인물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어머니의 정서와 생애 만족감 그리고 양육과제에 대한 곤란도 지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혼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Hetherington, Cox, 그리고 Cox(1976)도 이혼한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조부모, 형제, 친구로부터의 다양한 지원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사회적 관계망은 어머니에게 만족감과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부모역할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편 부모가 어떻게 양육과제를 지각하는가 하는 것도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지 심리학의 중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강조됨에 따라 부모의 행동 못지 않게 부모의 양육에 관련된 신념, 지각 등 인지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Ladd & Price, 1986; Miller, 1988). Ladd와 Price에 의하면, 아동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양육과제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부모일수록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적 능력은 저하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Kohn(1963)은 일찌기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 양육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신념이 다시 부모역할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Luster, Rhoades, & Haas, 1989; Wright & Wright, 1976)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부모가 가진 양육에 대한 생각과 지각이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고, 다시 양육 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연관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 역할에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을 다룬 연구는 극히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으나(김숙영, 1995; 성영혜, 1993; 한종혜,

1995),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관계망에 속한 인물과 특성을 다각도로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보다 충분히 분석하여 서술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나 신념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Goodnow & Collins, 1990; Melson, Ladd, & Hsu, 1993)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과 양육 과제에 관한 부모의 지각을 동시에 접근해 보는 것은 부모역할을 결정하는 변인의 다양한 측면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알아보고, 관계망 특성과 양육 과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관계망을 구성하는 관계의 범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기능(support function)은 관계의 범주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지원기능은 인구통계론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지원 기능은 어머니의 양육곤란도 지각과 관련이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 및 특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정서적 혹은 도구적 지원을 받으며 살아간다(Cochran & Brassard, 1979; Weinraub, Brooks & Lewis, 1977). 아동도 자신이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부모나 다른 가족 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Bronfenbrenner, 1977). 이와 같이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상호연관된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체를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이라고 정의하며, 어머니의 양육을 지원해 주는 경우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관계망(maternal social support network)이라 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의 양면에서 기술된다.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입장의 차이를 보이지만 구조적인 측면은 주로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된 사람의 수와 관계의 범주(예를 들어,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로 기술된다(House & Kahn, 1985; Tolsdorf, 197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연구에 따라 달리 보고되고 있다. 김숙영(1996)은 유아기 자녀(평균 29개월)를 둔 취업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평균 5.9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Levitt, Weber, 그리고 Clark(1986)에 의하면, 영아기 자녀(평균13개월)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평균 13명이었다. 관계의 범주는 배우자, 시댁, 친정식구, 이웃, 친구, 직장동료, 종교 기관 및 금전거래를 통한 형식적 관계를 포함하였다(김숙영, 1995; Levitt et al., 1986). 그 외에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들과의 접촉빈도, 구성원들 간에 서로 연결된 정도 즉, 밀도, 관계의 강도, 관계의 지속 기간, 관계에 대한 만족감 등이 구조적 측면에서 기술되기도 한다(Cochran &

Brassard, 1979; Kaplan, Cassell, & Gore, 1977).

기능적인 측면은 주로 관계망에 포함된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도구적 지원 기능(support function)으로 기술된다(Cochran & Brassard, 1979; Pearson, 1986). 사회적 관계망의 이러한 기능적 특성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제공되는 지원기능은 더욱 효율적이며, 관계의 범주에 따라 지원 기능이 다르다. Weiss(1974)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망에서 관계의 범주는 일차적 관계와 이차적 관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 두 유형의 관계가 제공하는 지원 기능이 다르다. 일차적 관계는 배우자, 가족성원,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로서 대체로 정서적 지원을 한다. 이차적 관계는 주로 직업이나 경제적 성취를 위한 물질적, 정보제공적 지원을 한다. 직장동료, 금전거래를 통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형식적인 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두가지 유형의 관계 중에서 일차적 관계로부터의 지원이 결여되어 있으면 인지적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애정적 관심의 결여로부터 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Weiss, 1974).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 범주에 따른 지원 기능의 차이에 대해 Parish, Hao, 그리고 Hogan (1991)은 미국 20代 흑인과 백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확대가족의 지원 기능을 연구하여 보고하였다. 확대가족의 관계망이 수행한 지원기능은 구성원의 性과 직업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여자들은 주로 아동을 직접 돌보아주는 지원기능을 수행하였고, 직업을 가진 구성원들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지원기능이 다른 관계에 의해 대치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Weiss(1974)에 의하면, 배우자를 잃음으로 인해 경험되는 정서적 고립감은 친구와의 친밀한 우정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정서적 지원으로 치유될 수 없었고, 또한 친구와의 우정적 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배우자와의 애정적 관계로 치유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지적 수행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내용 같은 구조적 측면이 기능적 측면과 함께 중요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기술되며, 기능적인 측면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 1과 2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다각도로 파악해 보고자 설정되었다.

2. 인구통계론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기능은 관계망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인구통계론적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Parish, Hao, 그리고 Hogan(1991)은 10代에 임신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던 미국의 20代 젊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인종과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이나 지원기능이 달리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흑인과 백인 모두 20代 초반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친척으로 구성된 관계망의 크기나 지원기능이 감소되었고 흑인 어머니의 경우, 친척으로부터 아동을 직접 돌보아주는 지원기능을 제공받은 반면, 백인

어머니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주로 제공받았다고 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달리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친정부모, 시부모, 자신이나 남편의 형제 및 친척 등 주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고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주로 본인 스스로 양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경미, 1993). 한편, Belsky (1984)는 결혼관계가 사회적 지원의 주 공급원이 되므로 여성의 결혼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크게 다를것이라고 시사하였다.

이와같이 지원을 받는 사람의 인구통계론적 변인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 다르다는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의 발달적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들면, Feiring과 Lewis(1991)는 9세와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중기에서 초기청소년기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발달적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9세 아동에 비해 13세 아동의 경우에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성인의 수가 적었고, 반면에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더 컸다고 하였다. 이는 동성이나 이성 친구의 수가 9세에 비해 13세 때 증가한 결과이다. 성차로서, 9세와 13세 아동은 모두 여아가 남아에 비해 동성의 성인을 사회적 관계망에 더 많이 포함 하고 있었으며,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구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더 컸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인구통계론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달리 형성될 수도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부분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세 번째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3.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이 양육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관계망과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를 본 연구를 통해 직접, 간접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숙영, 1996; Cochran & Brassard, 1979; Levitt, Weber, & Clark, 1986; Melson, Ladd, & Hsu, 1993; Parish, Hao, & Hogan, 1991).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특히 아동의 성인 친척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더욱 온정적이고 덜 제한적이었다고 한다(Jennings, Stagg, & Connors, 1991; Minturn & Lambert, 1964).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이 부모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자제하도록 직접, 간접으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한다(Cochran & Brassard, 1979).

사회적 관계망의 이러한 제재기능 이외에 Cochran과 Brassard (1979)는 문헌고찰을 통해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관계망이 제공하는 정서적, 도구적 지원 으로서 이러한 지원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양면을 모두 보인다. 긍정적 효과는 부모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아동양육의 어려움에서 경험하는 좌절감에서 벗어나 아동의 욕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의 예는, 시댁식구의 아동양육에 대한 훈계나 조언이 부모로서의 역할에 갈등을 증가시킴으로써,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 첫아이의 양육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의 또 다른 영향으로 관계망의 구성원이 아동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모델링을 통해 부모의

아동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기능은 관계의 범주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Levitt, Weber, 그리고 Clark(1986)은 평균 13개월된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어머니의 적응수준, 그리고 유아와의 애착관계 및 유아의 기질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적응수준은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 중에서 남편의 정서적인 지원 및 직접적인 양육보조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흥미롭게도 친구의 정서적 지원은 어머니의 적응수준과 오히려 부적 관계를 보였다. 한편, 그외 다른 구성원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나 양육보조적 지원은 어머니의 적응수준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이 누구로부터인가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한편, Melson, Ladd, 그리고 Hsu(1993)는 평균 4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이 양육곤란도 지각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Melson 등은 양육곤란도 지각을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도와줄때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원기능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일수록 아동양육과제를 덜 어렵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이 양육에 대한 곤란도 지각과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 기능 유형이나 관계의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곤란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이 누구이며 지원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 간의 관계가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자로서의 역할수행의 관계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망의 내용이나 지원기능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조금씩 달리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가 어머니의 양육곤란도 지각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 네번째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1개 대학부설 교육기관과 1개 어린이집에 3세~5세 자녀를 등록한 어머니 133명이었다. 두 개 기관은 연구자에 의해 편의 표집되었으며, 대학 부설 기관에서는 5개 학급의 아동 118명, 어린이집에서는 2개 학급의 아동 58명의 어머니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총 176명 중에서 예비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제외시키고 설문지에 응답한 133명의 자료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응답한 어머니의 인구론적 변인으로 평균 연령은 34세, 연령 범위는 23세에서 45세까지였다. 어머니 중 전업 주부가 41%, 전일제 취업주부가 47%, 그 외 부분 취업이 11%였다. 응답자 자녀의 연령 범위는 만 41개월~76개월(평균 61개월)이었으며, 남아의 어머니가 48%, 여아의 어머니가 52%였다. 자녀가 현재 속한 기관에 들어오기 전 다른 교육/보호 기관을 경험 한 경우는 48%였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자료로서 응답자인 어머니와 남편의 교육 수준 및 직업을

살펴보면, 학력은 고졸에서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하나 대학원 졸업이 각각 37%(응답자)와 50%(남편)이었으며, 직업 분포에서는 응답자의 38%, 남편의 44%가 전문직이었다. 응답자 가족의 월 소득은 130만원에서 1500만원, 평균 380만원이었으며, 가구원 수는 평균 4.4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은 중상류층에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요약되어있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 분	빈도(비율)
연령	20대	3(2.3)
	30대	122(92.4)
	40대	7(4.5)
	missing	1(.8)
취업유무	전업주부	55(41.4)
	전일제취업	63(47.4)
	부분취업	15(11.3)
자녀연령	3세	26(19.5)
	4세	55(41.4)
	5세	52(39.1)
자녀성별	남	64(48.1)
	녀	69(51.9)
자녀의 기관경험	유	69(51.9)
유무	무	64(48.1)
교육수준	고졸	11(8.3)
	대졸	73(54.9)
	대학원이상	49(36.8)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	3(2.3)
	대졸	61(45.9)
	대학원이상	67(50.4)
	missing	2(1.5)
남편의 직업	생산직	1(.8)
	판매·써비스직	5(3.8)
	사무직	45(33.8)
	관리직	20(15.0)
	전문직	59(44.4)
	missing	3(2.3)
계		133(100)

2. 연구도구

1) 예비조사

연구도구인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한 1차 예비조사는 취업모 10명과 비취업모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목적은 자녀양육을 지원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개략적인 숫자 범위, 그리고 지원의 내용을 개방식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1차 예비조사 결과, 관계의 범주는 혈연/비혈연, 형식적/비형식적 관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관계망에 속한 사람 수는 15명 이내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양육에 관한 지원 기능의 대표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2차 예비조사는 1차 예비조사에 기초하여 거의 완성된 설문지를 대학 부설 교육기관의 어머니 12명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때 설문지 내용 중 의문이 생기거나 모호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였다. 2차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의 문제점으로서 지원 기능에 관계된 몇 문항간에 중복된다는 느낌과 관계망에 기록한 사람들을 알게된 경위, 기간 등에 관한 것을 정확히 기억하여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응답에 필요한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10분까지 소요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설문지는 2차 예비조사 결과 중복된다고 느껴지는 문항을 수정하고 문항 순서 및 답지를 바꾸었으며 응답자가 기입해 넣어야 되는 내용 및 기억하기 힘든 자료를 일부 삭제하여 완성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1995년 7월 10일~7월 20일까지 연구 대상에서 밝힌 2곳의 기관에서 교사와 부모간의 개별 면담시간을 전후하여 실시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설문지의 성격상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개별 면담 전 기다리는 시간 또는 끝난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고 1, 2일 후에 수집되는 경우도 몇 명이 있었다.

본조사를 통해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계망과 양육 곤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조사」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개방식으로 접근한 Antonucci(1986), 어머니의 양육에 관련된 지원 기능을 연구한 Melson, Ladd와 Hsu (1993), 그리고 Levitt, Weber와 Clark(1986)을 참고하여 2차의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서 (1) 자녀양육에 도움을 준 사람 명단, (2) 위의 사람들이 각각 제공한 지원의 내용, (3) 양육 과제에 대한 곤란도 지각, (4) 어머니와 남편의 인구적 자료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내용중 지원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이며(예, 1:전혀, 2:때때로, 3:자주, 4:항상), 양육곤란도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은 리커트식 7점 평정척도이다(예, 1:아주 어렵다, 4:보통이다, 7:아주쉽다).

지원의 내용과 양육곤란도 측정을 위한 문항들에 대해서는 구인타당도를 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원 내용을 측정하는 14개 문항에 대해 공통요인분석 모델(common factor model)과 사각회전 방식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Scree검사를 통해 요인의 수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조언(4문항), 자녀를 직접 보아주고 놀아줌(3문항), 통제 및 갈등(2문항), 정서적 지원(2문항)의 네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이 낮은 3문항은 삭제되었다. 이 네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53%를 설명하였다.

양육곤란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에 대해서도 지원 기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친구관계 돕기(3문항), 인지적 자극(2문항), 일상적 돌보기(4문항)의 세요인이 추출되었다. 총 10개 문항 중에서 문항 5는 한 개 이상의 요인에 부하량을 보이므로 삭제하였다. 이 세요인은 전체 변량의 53%를 설명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지원의 내용을 측정하는 11개 문항에 대한 α계수는 .82, 양육 과제에 대한 곤란도 지각을 측정하는 9개 문항들에 대한 α계수는 .72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특성상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다. 하나는 133명의 연구대상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제공한 지원기능 점수를 포함하는 자료로서 총 872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자료였고, 다른 하나는 133명의 어머니별로 지원 기능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해 넣은 자료로서 편의상 '어머니 자료'라고 명명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지원기능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망 자료를 사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관계의 범주, 그리고 관계망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지원기능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 자료를 사용하였다. 크기와 지원기능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관계의 범주에 따른 지원기능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료를 사용하여 각 인구통계론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과제에 대한 곤란도 지각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료를 사용하여 두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 자료를 사용하여 각 관계 범주별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준다고 자유롭게 응답한 사람수는 평균 6.5명으로서 범위는 1명에서 16명이었다. 이와같이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에 포함된 다양한 사람들을 혈연 관계 유무 및 관계의 성격에 따라 남편과 자녀, 시댁식구, 친정식구, 이웃 및 친구, 형식적 관계 등 5개 범주로 나누고 세분화하였다. 여기서 형식적 관계란 양육이나 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양육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과 부모간에 성립되는 관계로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은 의사, 유아교육 및 탁아기관 교사, 원장, 가사관리인등을 포함한다. 연구에 참여한 133명의 어머니 중 얼마나 많은 수가 각 관계망 범주의 사람들을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전체 응답자 수에 대한 백분율 및 순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사회적 관계망에 포함된 구성원별 어머니의 반응

	관계망 범주	관계망 구성원	반응수	백분율	순위
혈연	남편과	남편	86	65	2
	자녀	자녀	9	7	17
	시댁	시아버지	31	23	11
	식구	시어머니	75	56	3
		시누이	34	26	8
		시동생,시아주버니	6	5	19
		기타 시댁식구	18	14	14.5
	친정	친정아버지	33	25	9.5
	식구	친정어머니	103	77	1
		여형제	73	55	4
		남형제	14	11	16
		기타 친정식구	23	17	12
비혈연	이웃/	학교 친구	36	27	7
	친구	이웃	33	25	9.5
		직장동료	18	14	14.5
		자녀 친구 엄마	19	14	13
	형식적	기관 교사, 원장	57	43	5
	관계	가사관리인	53	40	6
		의사, 기타	7	5	18

〈표 2〉에 의하면, 어머니들이 보고한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은 세분화하여 19개 유형이나 되었지만 50% 이상의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주요 구성원은 네 유형 정도이다. 가장 많은 수의 어머니들이(77%) 친정어머니를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이 남편으로 65%, 세번째가 시어머니로 56%, 그리고 네번째가 어머니의 언니 또는 여동생 등 여형제로서 전체 연구대상 어머니의 55%가 이 범주에 응답하였다. 그 다음 순위는 유치원 교사나 원장(43%), 가사관리인(40%) 등 형식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람으로 보고하였다.

2.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지원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망 크기와 각 요인별 지원 기능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적 지원 기능을 제외한 각 지원 기능, 즉 정보제공, 직접 돌봄, 그리고 갈등 및 통제 기능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정보제공($r=-.16$, $p<.05$)과 직접 돌봄($r=-.40$, $p<.001$)의 지원 기능이 낮았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갈등 및 통제는 낮았다($r=-.18$, $p<.01$).

한편 관계의 범주에 따라 지원기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지원기능점수의 총점과 각 요인 점수를 관계의 범주에 따라 일원변량분석하였으며, 어느 범주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지는 Scheffé검증을 하였다. 관계망 구성원의 5개 범주 중 첫째 범주(표 2 참조)에 해당하는 남편과 자녀 중에서 자녀의 언니 또는 누나를 주요 사회적 관계망으로 보고한 어머니가 있었으나 소수(9명) 뿐이고 남편과 자녀의 지원 기능이 다르므로 남편의 경우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3〉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의 관계 범주에 따른 지원기능의 차이

지원기능		관계의 범주				
		남편(1)	시댁(2)	친정(3)	이웃/친구(4)	형식적 관계(5)
정보 제공	$\bar{X}$ (*SD*)	12.76(1.92)	9.61(2.23)	10.67(2.74)	10.31(2.10)	9.48(2.28)
	F	31.18***				
	Scheffé	1>3, 4, 2, 5 3>2, 5				
직접 돌봄	$\bar{X}$ (*SD*)	9.20(1.26)	6.95(2.17)	6.70(1.63)	5.51(1.55)	7.90(2.04)
	F	69.00***				
	Scheffé	1>5, 2, 3, 4 5>2, 3, 4 2, 3>4				
정서적 지원	$\bar{X}$ (*SD*)	13.20(1.54)	10.82(1.71)	12.25(1.57)	10.12(1.44)	9.18(1.80)
	F	138.12***				
	Scheffé	1>3, 2, 4, 5 3>2, 4, 5 2>4, 5 4>5				
갈등 통제	$\bar{X}$ (*SD*)	4.22(1.16)	3.48(1.24)	3.47(1.17)	2.93(1.06)	2.56(0.77)
	F	40.53***				
	Scheffé	1>2, 3, 4, 5 2, 3>4, 5				
지원 총점	$\bar{X}$ (*SD*)	39.38(3.57)	31.01(5.18)	33.12(5.15)	28.79(4.33)	28.84(4.85)
	F	79.59***				
	Scheffé	1>4, 5, 2, 3 3>4, 5, 2 2>4, 5				

***$p<.001$ Scheffé 검증 결과 부등호는 $\alpha<.05$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표시함.

〈표 3〉에 제시한 결과를 보면, 관계의 범주에 따라 네가지 지원기능점수에 있어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Scheffé 검증 결과 남편이 다른 네가지 관계 범주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남편이 모든 지원기능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네가지 관계 범주는 지원기능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첫째,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친정식구의 지원 정도는 시댁 또는 형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큰 것으로 지각되었다.

둘째, 자녀를 직접 돌보고 놀아주는 기능은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네 범주 중에서 교사나 가사관리인 등 형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시댁, 친정, 이웃/친구보다 더 많이 수행하였다. 시댁, 친정, 이웃/친구 중 에서는 시댁과 친정, 즉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친구보다 직접 돌보는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셋째, 정서적 지원 기능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남편을 제외하고 친정식구가 많은 지원을 하였고, 다음은 시댁식구, 이웃/친구, 형식적 관계순으로 지원 기능에서 서열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갈등과 통제 기능은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네 범주 중에서 시댁과 친정 즉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되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 중 누가 어떤 기능을 많이 수행하는지는 지원기능의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나, 각 지원기능 점수를 모두 합한 총 지원기능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녀양육전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다고 어머니들이 지각한 사람은 남편이고 다음은 친정식구 그리고 다음이 시댁식구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혈연관계에 의한 지원을 많이 받으며, 혈연관계 중에서도 친정식구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의 유형 외에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의 性이나 혈연관계 유무에따라 지원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기능은 지원 제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즉 정보 제공을 제외하고 직접 돌봄, 정서적 지원, 그리고 갈등 통제 기능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관계 유무에 따라서도 지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혈연관계가 비혈연관계보다 정보제공, 직접돌봄, 정서적 지원 기능뿐 아니라 갈등 및 통제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였다.

〈표 4〉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의 성 및 혈연관계 유무에 따른 지원기능의 차이

지원기능		성별		혈연관계 유무	
		남	여	혈연	비혈연
정보 제공	$\bar{X}$	10.40	10.33	10.65	9.87
	(*SD*)	(2.98)	(2.40)	(2.67)	(2.23)
	F	.09		18.33**	
직접 돌봄	$\bar{X}$	7.87	6.85	7.24	6.78
	(*SD*)	(2.02)	(2.05)	(2.02)	(2.18)
	F	35.55***		9.47**	
정서적 지원	$\bar{X}$	12.15	10.85	11.98	9.64
	(*SD*)	(1.94)	(2.07)	(1.83)	(1.70)
	F	57.57***		329.73***	
갈등 통제	$\bar{X}$	3.67	3.17	7.27	6.41
	(*SD*)	(1.28)	(1.15)	(0.94)	(1.22)
	F	25.79***		114.49***	

***p<.001 **p<.01

어머니들이 보고한 사회적 관계망의 각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지원기능을 구성원에 따라 서열화

하고 5순위까지의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는 〈표 3〉과 〈표 4〉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관계의 구성원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다.

〈표 5〉 사회적 관계망 각 구성원의 지원기능 수준에서의 순위

순위	지원 총점	정보 제공	직접 돌봄	정서적 지원	갈등·통제
1	남편(39.4)[a]	남편(12.8)	남편(9.2)	남편(13.2)	남편(4.2)
2	친정 모(35.8)	친정 모(11.8)	교사, 원장(8.1)	친정 모(12.7)	시 모(4.0)
3	시 모(33.6)	자녀친구엄마(11.4)	가사관리인(8.0)	친정여형제(12.1)	친정 모(4.0)
4	친정여형제(32.6)	친정여형제(10.9)	시 모(7.7)	친정 부(11.9)	시 부(3.6)
5	친정 부(31.3)	시 모(10.4)	친정 모(7.3)	친정남형제(11.9)	친정 부(3.5)

a( )평균 지원 기능 점수임

〈표 5〉에 의하면 남편이 모든 유형의 지원기능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 제공, 직접 돌봄, 그리고 정서적 지원기능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갈등 및 통제 측면에서도 남편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어머니들이 지각하였다. 남편을 제외한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들의 지원 기능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제공의 기능은 친정어머니, 자녀친구의 엄마, 친정 여형제 등 주로 여자들이 담당하면서 혈연관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둘째, 직접 돌보고 놀아주는 기능은 유아교육기관 교사, 가사 관리인등 형식적이고 금전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등의 혈연관계보다 더 우선순위를 보였다. 세째, 정서적 지원은 친정 어머니, 친정 여형제, 친정 아버지, 친정 남형제 순으로 주로 친정 식구들이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갈등이나 통제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순으로 주로 혈연관계를 가진 부모세대와 경험하면서 시댁이 친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인구 통계론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특성의 차이

연구문제 3에서 제기한 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어머니의 연령, 취업유무, 자녀의 성, 연령, 유아 교육 기관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차의 검증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의하면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전업 주부 어머니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로 부터 자녀를 직접 돌보는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며, 갈등과 통제는 더 적다고 보고하였다. 지원 기능 중 갈등과 통제 기능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는 남아에 비해 여아의 양육시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들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그들로 부터 통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아동이 유아 교육 기관에 다닌 경험이 없는 경우 다닌 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인구통계론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 기능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인구통계론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 기능의 차이

인구통계론적변인 / 지원기능		어머니 취업상태		아동의 성		아동 기관경험 유무	
		전업주부	취업	남	여	유	무
정보제공	$\bar{X}(SD)$	10.31(1.10)	10.57(1.44)	10.38(1.44)	10.54(1.18)	10.23(1.20)	10.67(1.37)
	F	1.24		.52		3.59*	
직접 돌봄	$\bar{X}(SD)$	7.02(.93)	7.48(1.26)	7.32(1.25)	7.25(1.06)	7.11(.92)	7.44(1.32)
	F	3.98*		.16		2.91*	
정서적 지원	$\bar{X}(SD)$	11.33(1.14)	11.10(1.21)	11.06(1.18)	11.32(1.20)	11.12(1.08)	11.26(1.27)
	F	1.21		1.50		.46	
갈등, 통제	$\bar{X}(SD)$	3.44(.77)	3.27(.68)	3.19(.63)	3.48(.77)	3.34(.64)	3.35(.79)
	F	1.79*		5.59*		.013	

*p<.05

4.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양육곤란도 요인인 친구관계 돕기, 인지적 자극, 일상적 돌보기의 세 요인을 가지고 요인별 양육과제에 대한 곤란도 지각이 사회적 관계망 특성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두 변인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양육곤란도에 대한 지각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표 7〉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 기능은 부분적으로 양육곤란도와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는데 이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망의 정서적 지원이 많을수록 양육과제 전반 및 일상적으로 자녀 돌보기가 쉽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흥미롭게도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이 자녀를 대신 직접 돌보는 지원 기능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는 아동의 친구관계를 도와주는데 어려움을 더 느꼈다.

〈표 7〉 사회적 관계망 특성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양육곤란도 /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친구관계돕기 ($\bar{X}$=3.87)[a]	인지적 자극 ($\bar{X}$=4.85)	일상적 돌보기 ($\bar{X}$=4.08)	총점 ($\bar{X}$=4.18)
1) 정보제공	.06	.10	.14	.14
2) 직접 돌봄	-.18*	.02	.11	-.02
3) 정서적 지원	.06	.11	.36***	.28**
4) 갈등, 통제	.00	-.14	-.00	-.05
총 점	-.04	.06	.27**	.15

***p<.001 **p<.01 *p<.05

a 요인별 문항 점수의 평균임

(1:아주 어렵다; 4:보통; 7:아주 쉽다)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기능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이러한 관계가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 범주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5개의 관계망 범주별로 분석하였다. 범주별로 산출된 상관계수의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사회적 관계망의 5개 범주에 따른 지원기능과 양육 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양육곤란도 / 범주별 지원기능	친구관계 돕기	인지적 자극	일상적 돌보기	총점
1) 남편				
정보제공	.13	-.16	.10	.07
직접돌봄	-.11	.04	-.01	-.05
정서적 지원	.20	.11	.40**	-.37**
갈등통제	-.09	.16	-.23	-.12
2) 시댁식구				
정보제공	-.00	.09	.11	.09
직접돌봄	-.11	-.12	.02	-.08
정서적 지원	.14	-.05	.33**	.25**
갈등통제	-.08	.07	-.06	-.05
3) 친정식구				
정보제공	.06	.11	.07	.11
직접돌봄	-.10	.00	-.05	-.07
정서적 지원	.02	.07	.24**	.17**
갈등통제	-.02	.09	-.03	.01
4) 친구/이웃				
정보제공	.20*	-.02	-.01	.10
직접돌봄	.03	.01	-.07	-.02
정서적 지원	.17	.19	.21*	.27**
갈등통제	.04	-.09	-.04	-.04
5) 형식적관계				
정보제공	.03	.04	.19*	.14
직접돌봄	-.17	-.04	-.07	-.14
정서적 지원	-.01	-.06	.15	.07
갈등통제	-.04	.08	.09	.06

**$p<.01$ *$p<.05$

〈표 8〉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망의 정서적 지원기능과 일상적 돌보기나 양육전반에 대한 곤란도 지각과 형식적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 범주에서 일관성있게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즉,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양육과제가, 특히 일상적인 돌보기가 쉽다고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양상이 지원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 중에서 친구/이웃 및 형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정보제공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곤란도 지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친구로부터의 정보제공적 지원은 아동의 친구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형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정보제공적 지원기능이 많을수록 아동을 일상적으로 돌보는 과제를 쉽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관계망의 특성을 알아보고 관계망의 특성과 양육과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얻어진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 순으로 정리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평균 6.5명이었으며, 관계망 구성원들과의 관계 범주는 19개 유형으로서 크게 5범주로 분류되었다. 다섯 범주는 남편, 시댁식구, 친정식구, 이웃 혹은 친구, 그리고 아동의 교사 혹은 가사관리인 등 형식적인 관계를 포함하였다. 이들 중 친정어머니가 가장 많은수의 어머니들에 의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

고되었으며, 다음이 남편, 세번째가 시어머니, 네번째가 연구대상 어머니의 여형제 순으로서, 혈연관계가 우세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은 아동양육을 위한 정보제공, 직접적인 돌봄, 정서적 지지, 그리고 갈등 및 통제의 지원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지원 기능 중 정보제공이나 직접돌봄의 지원기능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어머니들에 의해 지각되었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지원기능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Cochran & Brassard, 1979; Jennings, Stagg, & Connors, 1991).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김숙영(1995)의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부적 관계를 보인 것과 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적은 인원으로부터의 지원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지원 기능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추후연구는 이러한 추론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관계의 범주에 따라 지원기능의 차이를 보였는데,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은 자녀양육과제 수행을 위해 배우자(남편)가 모든 유형의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한다고 지각하였다. 특히, 네 가지 지원 기능 중에서 남편이 다른 관계 범주보다 직접 돌보고 놀아주는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이 과제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선행연구(Parish et al., 1991) 결과와 상반된다. 그 이유로서 직접 돌봄의 지원을 구성하는 3개 문항의 내용이 대신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유아와 함께 놀아 주는 기능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남편을 제외하고 시댁, 친정, 이웃/친구, 형식적 관계의 범주간에도 지원기능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원은 친정식구, 직접 돌보는 기능은 교사나 가사관리인 등의 형식적인 관계가 가장 많이 제공하였다. 그리고 갈등 및 통제기능은 시댁, 친정의 혈연관계가 비혈연관계보다 더 많이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 유형에 따라 지원 기능이 다르다는 Weiss(1974) 등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세째,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기능은 어머니와 자녀의 인구통계론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취업상태, 자녀의 성, 자녀의 유아교육기관경험 유무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자녀를 직접 돌보아주는 지원을 더 많이 받았고, 자녀가 이전에 유아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없는 경우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어머니들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정보제공적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한편, 남아의 어머니는 사회적 관계망과의 갈등이나 통제를 여아의 어머니보다 적게 경험하였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원기능이 제공자의 특성 뿐 아니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Parish et al., 1991; Feiring & Lewis, 1991).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들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양육 과제, 특히 유아를 직접 돌보거나 양육을 위한 정보를 얻는 과제를 사회적 관계망의 자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아동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 행동 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증거이다.

네째,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어머니의 자녀양육과제에 대한 곤란도 지각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더욱 온정적이라는 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Cochran & Brassard, 1979; Jennings, Stagg, & Connors, 1991; Minturn & Lambert, 1964). 앞에서 제시한 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지원 기능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부적 관계를 보인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인 차원은 어머니들이 양육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관한 다각적인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기능은 어머니의 양육 과제에 대한 곤란도 지각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정보 제공, 직접 돌봄, 정서적 지원, 그리고 갈등 및 통제의 4가지 지원기능 중 정서적 지원이 클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일상적으로 돌보는데 어려움을 덜 느꼈다. 즉,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이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을 덜 느꼈고 특히, 자녀의 일상적 돌보기에 어려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대체로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 기능 중에서 정서적 지원이 양육과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직접 돌봄의 지원지능은 어머니의 양육과제에 대한 지각과 부적 관계를 보여 주었는데 즉,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들이 자녀를 직접 돌보아 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친구관계를 도와주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컸다. 이는 주양육자로서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구 관계를 파악하고 관계의 발달을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하기 어려운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고, 또는 자녀가 또래 친구가 아닌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 즉, 성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또래 친구 관계를 발달시킬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이 비교적 중상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인구통계론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계층 등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계층에 대한 분석이 추후 연구의 과제로 고려될 수 있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지각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및 지원 기능 그리고 양육 과제에 대한 곤란도를 조사하였고, 이러한 어머니의 지각이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실증적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안한다면, 사회적 관계망 특성의 다각적 이해를 위해서 중요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 제공자(예를 들어 남편, 친정 어머니)가 없는 경우 어머니가 받는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Weiss (1974)가 제시한 대로 대치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구에 의해서인지에 대한 정보는 특히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에 대한 곤란도 지각이 궁극적으로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후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3~5세 유아 어머니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1명에서 16명까지로 평균 6.5명이었다.

2) 어머니를 지원한 사회적 관계망의 주요 구성원은 친정 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여자 형제 등으로 혈연관계가 우세하였다.

3)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은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관계의 범주 및 구성원에 따라 다르나 공통적으로 남편과 친정 식구 등 혈연 관계로부터의 지원이 많았다.

4)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이 제공하는 지원 기능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성 및 유아교육기관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5)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양육 과제 전반에 대해 어려움을 덜 지각하였다.

참 고 문 헌

김숙영(1995).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경미(199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탁아시설에 대한 요구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종혜(1995).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 2, 129-142.

Abernathy, V. (1973). Social network and response to the maternal rol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3,*** 86-92.

Antonucci, T. C. (1986). Measuring social support networks:Hierarchical mapping technique. ***Gernerations,*** 10-12.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_____ (1994). 인간생태학:개념과 관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 인간생태학적 측면에서의 가정학. 1994년 10월 27일, 3-46.

Cochran, M. M. & Brassard, J. A.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Feiring, C. & Lewis, M. (1991).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Sex differences in the social network and perceived self-competence. ***Sex Roles, 24,*** 489-509.

Goodnow, J. J., & Collins, W. A. (1990).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Hillsdale, NJ:Erlbaum.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76). Divorced fathers. ***Family Coordinator, 25,*** 417-428.

House, J. S. & Kahn, R. L.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Academic Press.

Jennings, K. D., Stagg, V., & Connors, R. E. (1991). Social networks and mo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966-978.

Kaplan, B. H., Cassell, J. C., & Gore, S. S.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 47-58.

Kohn, M. (1963). Social cla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 interpret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 471-480.

Ladd, G. W. & Price, J. M. (1986). Promoting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competence: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ask difficulty and children's perceived and a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7,* 446-460.

Levitt, M. J., Weber, R., & Clark, 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Lewis, M. & Weinraub, M. (1976). The father's role in the infant's social network.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Luster, T., Rhoades, K., & Haas, B. (1989).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behavior: A test of the Koh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39-147.

Melson, G. F., Ladd, G. W., & Hsu, H. (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Minturn, L. & Lambert, W. W. (1964). *Mothers of six cultures: Antecedents of childrearing.* New York: Wiley.

Parish, W. L., Hao, L., & Hogan, D. P. (1991). Family support networks, welfare, and work among young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03-215.

Pearson, J. E. (1986).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390-395.

Tolsdorf, C. C. (1976). Social networks, support, and coping: An exploratory study, *Family Process, 15,* 407-417.

Weinraub, M., Brooks, J., & Lewis, M. (1977). The social network: A re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attachment. *Human Development, 20,* 31-47.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Ed.), *Doing unto oth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Wright, J. D. & Wright, S. R. (1976). Social class and parental values for children: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Kohn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527-537.